

# “경주전역서 聖師 기린다”

## 원효문에대제전

16·17일 분황사·황룡사지등서 열려

### 제향의식·호기놀이·무애가무마당등 풍성 불국토 기원 담아 1310개 연 하늘에 띄워

한국불교사상 가장 뛰어난 고승 원효스님(617~686)을 기리는 대규모 문화행사 '원효문에대제전'이 열린다.

오는 16·17일 양일간 분황사 황룡사지 경주시내에서 개최되는 이 행사는 원효의 사상을 선양하기 위해 지난해 출범한 원효학연구원(원장 김영태)의 주관으로 제향의식 출강연 무차대회 열림마당 노래 마당극 탐돌이 등 다양한 장르의 행사가 어우러진다.

법사민 축제가 될 이번 행사는 16일 오전 10시 분황사에서의 봉헌의식으로 시작된다. 1부는 불교 전통의식으로 원효성사제향의식이 봉행되고 2부 이노연씨의 승무, 3부 김영태 박사의 '원효사상의 현대적 의미' 특강이 있으며 당일 오후 1시부터는 풍물과 노래자랑의 무차대회가 열린다.



경주 분황사에 소장되어 있는 원효스님 영정.

시주를 받아 그 돈으로 부처님께 등을 켜는 놀이와, 황룡사지에서 열리는 열림마당은 법고 범종 목어 운판이 울리는 가운데 원효스님 열반주기 수대로 1천3백10개의 연을 하늘로 띄운다. 김지하시인의 작사와 김영태씨 작곡의 '원효의 노래'도 불려지며 춤과 흥겨운 열림놀이 펼쳐진다. 경주향토사학자 윤경철씨의 이야기, 화랑 선무도의 무애한마당, 김덕수 사물놀이팀의 풍물 한 마당도 흥겨움을 더한다.

특히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17일 저녁 9시부터 황룡사지에서 열리는 '무애가무마당'. 극단 자갈치가 '신새벽'을 주제로 한국불교의 신새벽을 연 원효스님의 삶과 사상을 바탕으로 보여주고 극이 끝나면 참석자 모두가 원효스님이 추었다는 무애가무를 추면서 연등행렬을 벌인다. 황룡사지 금당터에 연등행렬이 도착하면 레이저빔이 원효성사의

형상과 황룡사9층탑을 하늘에 재현하고 그 아래 마당에서는 영산회상 불보살춤이 한바탕 벌어질 예정이다. 전통을 바탕으로 한 실험적인 다양한 행사를 통해 원효스님을 오늘에 재현하고자 하는 분황사 주지 종수스님은 "성사와 화형 무애사상을 오늘에 선양시켜 민족정신과 한국불교발전에 견인차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숙 기자

동국대 90년기념

고은선생 초청강연

“부처님의 언설을 모은 팔만대장경은 그 자체가 무공무진한 불교문학이다.”

고은 시인은 지난 6일 동국대 개교 90년과 문학의 해를 기념해 가진 정각원 초청강연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고은시인은 “불교문학은 여전히 과거에만 안주하려 해 침체돼 있다”며 “꼭 ‘佛’자가 들어가야만 불교문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불교사상이 자연스럽게 녹아있고 저절로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새로운 불교문학을 개척해야만 불교문학이 확고한 자리를 잡고 발전을 기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장경은 불교문학寶庫



동국대가 최근 구입 최초 공개한 <대반야바라밀경 권368> 초조 대장경의 일부이다.

## 동국대 소장 국보·보물 '볼 기회'

### 24일까지 東大박물관 '수능엄경' 등 55종 전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종립 동국대가 소장하고 있는 국보 보물 등 귀중한 문화재급 귀중한 유물이 있다. 동국대는 오는 24일까지 동국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국보 보물 귀중본전'을 개최하고 있다. 일전에 공개되기는 처음인 이번 특별전에서는 <수능엄경

(국보 212호)> 10권 완결본을 비롯 <보살선계경 권8(보물 740호)> <감지은니묘법연화경 권2변상도(보물 300호)> <석보상절(보물 523호)> <일인석보(보물 745호)> 등 국보 1건, 보물 11건 등 총 55건이 공개되고 있다. <대반야바라밀경 권 368>은 약 2백권 정도만이 남

아있는 초조대장경의 일부로서 국가 지정문화재에 준하는 중요한 자료로 이번에 최초 공개되는 것. 또한 <묘법연화경> <불설대목경> <불설대부모은경> 등에는 다양한 번상판화가 삽입되어 있는데 16세기 불화양식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세계적인 현대음악작곡가 윤이상씨의 음악세계를 조명해 보는 음악회가 열린다. '비천(飛天), 겨레의 하늘을 날아...'라는 제목으로 펼쳐지는 음악회는 KBS홀(5



윤이상씨.

윤이상추모음악회  
15일 KBS홀·17일 등대

## “飛天, 겨레의 하늘을...” 불교사상담긴 '바라' 국내 첫연주

월 15일 오후 7시30분)과 동국대 교정(5월 17일 오후 5시)에서 각각 개최된다. 그토록 각고 심어왔던 고국에서 그리고 사할에서 자신의 곡을 연주하고자 열망했던 윤이상씨의 한을 다소나마 풀어주는 기회가 될 이번 동국대에서의 음악회는 불교를 주제로 한 관현악곡 '바라'를 비롯 그의 초기 가곡 및 가악곡들도 구성된다. 타계하기 일년전인 지난 94년 송담스님(인천 윤희화 조

실)으로부터 정식으로 수계를 받아 '형공(靑空)'이라는 법명을 받은 정도로 불교에 깊이 심취한 윤씨는 '바라' 외에 '오, 연꽃속의 진주여' '나모(南無)' '올마니반에홀' 등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주옥 같은 곡을 여럿 남겼다. 동서양 음악의 접목을 꾀했던 그의 음악혼을 분단극복과 화해의 정신으로 되살리는 이번 음악회는 윤이상과 같이 활동했던 독일의 현대음악 연주자들이 출연 연주한다.

## 에밀레종 안전진단 받는다

국보 제29호 에밀레종(성덕대왕신종)이 주조된지 1천 2백25년만에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받는다.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지건길)은 지난 8일 에밀레종의 융형 규명 및 안전성 여부 및 지속적인 타종여부를 가리기 위해 문화재위원회 안전진단을 건의, 문화재위원회의 동의를 받는다. 또한 포항제철 산업과학기술연구소에 의뢰, 오는 6월부터 종합진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전시회

### 현대불교미술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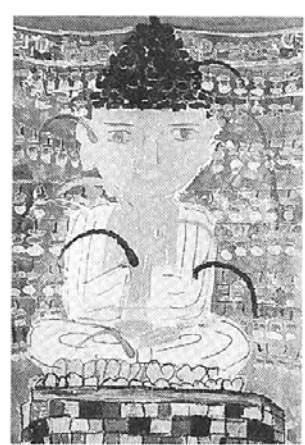
동국대 불교미술문화재단 구소(소장 문명대)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동국대 학술문화관 전시실에서 현대불교미술전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는 문명대 강순현 김대열 김종섭 진철문 박명순 조성호 김정희씨 등 30여 회원의 불화 현대화 조각 등 불교를 소재로 한 40여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 제3회 불미협展

제3회 한국불교미술인협회展이 5월15일부터 21일까지 덕민미술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영화씨의 '산은 산이요' 김길연씨의 '해바라기' 김대열씨의 '바람소리' 정경연씨의 '무제 95·Ph' 현경희씨의 '경주남산' 등 31작품이 출품됐다.

### 원간 <불광>과

목아불교박물관이 공동 주최하는 어린이날 기념 제2회 전국어린이 부처님그리기대회에서 최미나양(충북 옥천 백운사자비어린이회·청산초등교 6년)이 종합대상(문화체육부장관상)을 차지했다. 지난 5일 여주 목아불교박물관에서 열린 이 행사에는 전국 각 사찰 어린이회와 유치원생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참가, 총 8백여 점의 그림이 접수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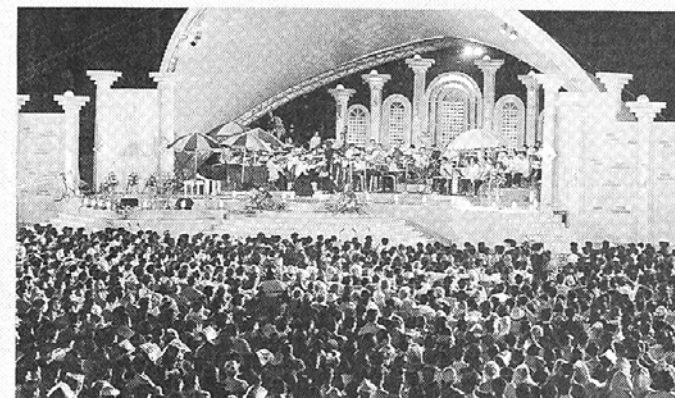
제2회 전국어린이 부처님그리기 대회에서 종합대상을 차지한 최미나양의 그림.

### 부처님그리기 최미나양 '대상'

이번 행사에서 대상(봉축위원장상)에 심지연양(서울 성심사어린이회·미로유치원), 단재부분 최우수상은 서울 조계사 어린이회, 옥천

백운사자비어린이회, 인천 영산유치원 등이 차지하는 등 분상 15건, 입선 200명 등 다수가 입상해 박수를 받았다.

## 남부대 정권아마의해



동국대학교 개교 90주년 기념 'KBS 열린음악회'가 지난 7일 대운동장에서 3만여 동문과 학생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이날 음악회에서 박범준교수가 지휘하는 불교중앙합창단과 만능엔터테이너인 불자 김성녀씨의 찬불가 '거룩한 손'(목탁배자사 박범준작곡)의 공연은 거룩한 삼보의 언덕 등

국대학교 교정 곳곳에 울려 퍼져 간간히 흥취를 돋우는 빛깔과 함께 더욱 운치있는 분위기를 연출해 냈다. 이날 음악회에는 송석구총장을 비롯, 황명수 총동창회장, 최영우 동문(신한국당 국회의원) 등과 동국대와 자매결연을 맺은 미국 미시간대학교와 일본 오쿠대학의 친선인사들도 참석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 문화소식

### 만해스님 낭송시 선집

<님의 침묵> 등 만해 한용운 스님의 시를 낭송한 낭송시 선집이 나왔다. 수창을만 간. 이번 낭송시 선집은 '알수 없어요' '복종' 등 88편의 시가 성우 이정구씨의 낭송으로 녹음됐으며 국악과 클래식음악이 배경음악으로 삽입돼 있다.

### '밀린다왕문경' 등 CD롬

불교문화전자화면연구실(실장 해묵)에서는 동국대경원에서 간행한 <불교성전> <밀린다왕문경> <지혜와 자비의 말씀> 등

3종의 경전을 묶어 CD-ROM으로 출판했다. 이번 출판된 디지털 불경들은 제목, 본경문, 경문의 이해를 도와주는 주제, 각 구절 색인으로 구성되어 있어 원하는 부분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 한국불교 홍보책 발간

조계종 총무원에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위한 해외홍보책자 <Korean Buddhism·사진>을 발간했다. 불국사 석굴암부처님과 해인사 팔만대장경을 표지로 해 4x6배판 울랄라로 나온 <Korean Buddhism>에는 불교개론·역사, 한국불교의 특징, 주요사찰, 불교예술, 부처님의 가르침, 결론 등이 사진과 함께



들어있다. 조계종은 해외 한국포교당, 세계 주요대학 도서관과 해외 한국 공사관, 유스호스텔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판매가 미화 15달러. (02)737-9684

◇기사보여 '불심시심' 읽는다.

실용신안 : 제14461호 의장등록 : 제12382호

**이제 연등에 변장한 풀칠이 필요 없습니다!!**

# 홍법등

오직불심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작·이·간·편·한·등

중대의 철골 구조에 날장으로 풀칠이 하면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2분내에 완성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아·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치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 정면」에 활용

재·사·용·가·능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며 수 회의 재사용이 가능」토록 고안.

경제적인 가격

중대의 복잡 다변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제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취급목적 봉축행사용품 일체

홍법팔각등, 초별등, 명가등, 천도광명등, 삼재소멸등, 만불기, 천수다라니법, 교배(불자의집, 교동안전기원배)

◇단 한번의 공정으로 2분내 완성

\*전국 불교용품점 및 본사로 문의바랍니다.

오직 불심으로 보답하는 **홍법기획**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 2동 398-6  
TEL : (032) 613-4027, 4028  
FAX : (032) 665-0965

복이 될 인연을 만나면 복이 되고, 불행한 인연을 만나면 불행이 온다.

# 불치병, 난치병, 조상묘지 상담

◎현재 많은 분들이 만성질환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고쳐진듯하다 또다시 재발하는 그 원인은?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 치료와 조상과 부모 형제의 영혼과 고히운을 편히 모셔주면 자신들이 좋은 행복을 받아 금강보광제의 영안이 되는 비법을 오랑 테스트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법현법사!

◎신비한 영험을 얻는 비전을 법현법사 특별상담!

오랑테스트는 생명과학의 파장테스트다.

오랑테스트는 파장의 원리와 우주의 기를 이용하여 과학적인 비법으로 테스트하면 원인과 결과가 밝혀지는 신비의 비법이다.

만성질환 상담

정신병, 우울증, 중이염, 자폐증, 불임증, 근위력증, 뇌성마비, 신장질환

모지상담

◎조상의 유골에서 좋은 기를 받아야 자신 이 복을 받게되고  
◎조상의 유골에서 나쁜 기를 받으면 불행 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풍수질·흥론이다)  
◎풍수지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특수개 발한 영당 도에는 영력을 영실케 면히 모셔는 영혼의 명당유래이 된다.  
◎조상과 부모형제의 영혼을 영당도에 모셔서 땅에 묻고 황금관리를 발원하면 대운세의 타점이 되어 좋은 행복을 받아 행복과 영광이 이루어진다.  
◎영험을 기르려는 영혼과 병고와 불행을 주는 고히운을 지극한 효심으로 영당도에 모셔주고 극락정도에 이룩하게 하면 그 공덕으로 금강보광제의 영안이 되어 만성 질환도 치료되고 행운과 소원이 성취된다.

◆ 서울상담 ◆  
· 장 소 : 안국선원 (송파구 오금동, 전철5호선 방이역 100m)  
· 상담일자 : 매주 금,토 (2일간)  
· 상담접수 : (02) 3401 - 3259

◆ 부산상담 ◆  
· 장 소 : 대항불교불심포교원 (부산광역시 건너편 국민은행)  
· 부산 상담일자 : 월-수 4일간  
· 상담접수 : (051) 465-5100, 467-5200